목차

(음운론) 음운과 음운 체계

– 음운 변동

–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10 p
비음화 13 p
유음화 14 p
구개음화 17 p
경음화 20 p

– 탈락

자음군단순화 23 p
ㅎ 탈락 25 p
그 외의 탈락 26 p

– 첨가

ㄴ 첨가 28 p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30 p
ㄴ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31 p
반모음 첨가 32 p

– 축약

거센소리되기 33 p
모음 축약 34 p
연습문제 35 p

(형태론) 형태소와 단어

– 단어의 분류

체언 49 p
관계언 51 p
용언 53 p
수식언 57 p
독립언 59 p

– 단어의 형성

합성어 60 p
파생어 61 p
연습문제 62 p

(통사론)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짜임

– 문법요소

피동과 사동 72 p
부정 75 p
시제와 동작상 78 p
높임법 79 p

– 문장성분

주성분 80 p
부속성분 82 p
독립성분 84 p

– 문장의 짜임

이어진 문장 85 p
안긴문장 86 p
연습문제 90 p

(국어사) 우리말의 옛 모습

중세국어 98 p
근대국어 103 p
연습문제 106 p

(기타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111 p

(해설) 정답과 자세한 풀이 113 p

[기본]

탈락 脫落

음운 탈락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자음군 단순화 2. ㅎ 탈락 3. ㄹ 탈락 4. ㅡ 탈락 5. ㅏ/ㅓ 탈락

1. 자음군群[25] 단순화

오늘날 우리말에서는 초성에서든 종성에서든 두 개 이상의 자음(자음군)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없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으로는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발음 과정에서 탈락(단순화)하게 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① 몫 → [목] 삯 → [삭]
ㄱㅅ → ㄱ ㄱㅅ → ㄱ

② 앉다 → [안따] 않는 → [안는]
ㄴㅈ → ㄴ ㄴㅎ → ㄴ

③ 닭鷄 → [닥] 밝다 → [박따]
㉠ㄱ → ㄱ ㉠ㄱ → ㄱ

앎 → [암] 삶다 → [삼따]
㉠ㅁ → ㅁ ㉠ㅁ → ㅁ

여덟 → [여덜] 넓다 → [널따]
ㄹㅂ → ㄹ ㄹㅂ → ㄹ

외곬 → [외골]
ㄹㅅ → ㄹ

핥다 → [할따] 앓는 → [알른]
ㄹㅌ → ㄹ ㄹㅎ → ㄹ

읊다 → [읍따]
㉠ㅍ → ㅂ[29]

④ 값 → [갑] 없다 → [업따]
ㅂㅅ → ㅂ ㅂㅅ → ㅂ

주의)[27] 밝게 → [발께] 밝고 → [발꼬]
ㄹ㉡ → ㄹ ㄹ㉡ → ㄹ

주의)[28] 넓적하다 → [넙쩌카다]
㉠ㅂ → ㅂ

25) 群 : 무리 [군]. 따라서 자음군은 자음들의 떼.
26) 반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초성에서 자음군이 발음될 수 있었다. ex) '뻬, 빨'
27) 용언의 어간이 ㄹㄱ으로 끝나는 경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끝의 ㉡이 탈락한다.
28) 용언 '넓-다' 의 경우, '넓-' 을 어근으로 하는 일부 복합어에서 예외적으로 어간 말의 ㉠이 탈락한다.
29) ㅍ이 ㅂ으로 교체를 겪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심화]

○ 자음군단순화 관련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ㄻ,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30]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 : 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 : 따]	밟소[밥 : 쏘]	밟지[밥 : 찌]
	밟는[밥 : 는 → 밤 : 는]	밟게[밥 : 께]	밟고[밥 : 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	젊다[점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 용언 '넓다[널따]'와 관련된 예외적 발음

표준발음법에서 제시한 단어인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외에도 예외적인 발음이 더 있다.

넓죽넓죽[넙쭝넙쭉], 넓적하다[넙쩌카다], 넓적넓적[31][넙쩡넙쩍], 넓죽이[넙쭈기]
넓다듬이[넙따드미], 넓미역[넘미역], 넓삐죽하다[넙삐주카다], 넓살문[넙쌀문]

위 사례들은 '넓-' 뒤에 ㅈ, ㄷ, ㅁ, ㅃ, ㅅ으로 시작하는 말이 합쳐서 어간을 이루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ㅂ 중 ㉠이 탈락하고 ㅂ이 남는 사례들이다. 반면에 어간 '넓-'에 ㅈ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각각 넓지[널찌], 넓디넓다[널띠널따]로 ㉡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여덟/은 [여덜]로 소리가 나는데, 이로 인해 뒤에 조사 /과/나 /도/와 결합하더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여덜과]와 [여덜도]로 발음된다. 표준발음법 제2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ㄹㅂ겹받침 뒤의 경음화 조건은 'ㄹㅂ'이 'ㅂ'으로 소리 나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어 'ㄹ'로 소리 나는 '여덟'은 제외된다. 다만, 제25항의 /핥다/가 [할따]로 소리 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음군 단순화 이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를 그대로 /여덟도/에 적용하면 [여덜또]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25항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여덟도'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환경이므로 형태론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즉,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등 음운 규칙은 그 적용 순서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1) 여럿이 다 넓적한 모양. ex) 떡을 넓적넓적 자르다.

[기본]

2. ㅎ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예외 없이 탈락한다. 이는 어간의 끝이 겹받침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① 좋으면 → [조으면]　　닿아서 → [다아서]
　ㅎ　　→ ∅　　ㅎ　　→ ∅

② 않으면 → [아느면]　　많아서 → [마나서]　　싫으면 → [시르면]
　ㄴㅎ　　→ ㄴ∅　　ㄴㅎ　　→ ㄴ∅　　ㄹㅎ　　→ ㄹ∅

③ 놓이다 → [노이다]　　많이 → [마니]　　끓이다 → [끄리다]
　ㅎ　　→ ∅　　ㄴㅎ → ㄴ∅　　ㄹㅎ　　→ ㄹ∅

①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ㅎ이 홀로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②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각각 ㄴㅎ과 ㄹㅎ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③에서는 어근으로서의 어간 끝 자음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에도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①은 다른 현상과 혼동할 만한 것이 없으나 ②, ③의 경우 ㅎ이 겹받침의 일부인 케이스가 있어 자칫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음군단순화와는 원인과 양상 및 결합 환경도 다르다. 다음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 넘어가자.

	ㅎ 탈락 (②, ③)	자음군 단순화
결합 환경	어간 끝의 ㅎ + 모음 어미 또는 접사	겹받침 + 자음 or 단어의 끝
사례	싫 + 어 [시러]	밝 + 다 [박따]
원인	ㅎ의 음운적 특성	우리말의 구조적 제약 (자음은 최대 2개까지만 연속 가능)
대조군 비교	다른 자음은 모음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탈락하지 않음(막+아[마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음(밝+아[발가])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에서는 자음이 소리 날 수 있는데, 그 개수가 각각 하나씩만 가능하다. 즉 종성과 초성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있는데, 형태소상으로 세 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경우, 실제로 발음될 때에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한 현상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이다.

②, ③의 ㅎ 탈락은 위의 자음군 단순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뒤에 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음이 충분히 발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아서[마나서]는 많+아서[만하서]라고도 발음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이 탈락했으므로 이는 ㅎ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초성과 종성 자리를 의자로, 자음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의자가 두 개인데 사람이 세 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앉지 못했다면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의자가 부족한 구조가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의자가 두 개이고 사람도 두 사람인데 앉지 못하는(탈락)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3. ㄹ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ㄹ은 ㄴ, ㄹ,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① 살-니 → 사니　살-냐 → 사냐　살-ㄴ → 산
　㉠-니 → ∅니　㉠-냐 → ∅냐　㉠-ㄴ → ∅ㄴ
② 살-ㄹ → 살　살-ㄹ수록 → 살수록
　㉠-ㄹ → ∅ㄹ　㉠-ㄹ수록 → ∅ㄹ수록
③ 살-ㅂ니다 → 삽니다
　㉠-ㅂ니다 → ∅ㅂ니다
④ 살-시-오 → 사시오
　㉠-시-오 → ∅시오

위와 유사하게 단어가 합성 및 파생될 때 어근 끝의 ㄹ이 종종 탈락하기도 한다.

① 활+살 → 화살　말+소 → 마소　딸-님 → 따님
　㉠+살 → ∅살　㉠+소 → ∅소　㉠-님 → ∅님

ㄹ탈락은 자음군 단순화나 ㅎ탈락과 달리 표기에 음운변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음운 변동은 표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발음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ㄹ탈락과 ㅡ탈락, ㅏ/ㅓ탈락은 표기에 이미 이러한 변동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저 이런 변동이 있다고만 알아 두자.

4. ㅡ 탈락

일반적으로 용언 어간 끝의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① 쓰-어 → 써　담그-아 → 담가　슬프-어 → 슬퍼
　ㅆ◯-ㅓ → ㅆ∅ㅓ　ㄱ◯-ㅏ → ㄱ∅ㅏ　ㅍ◯-ㅓ → ㅍ∅ㅓ

② 부르-어 → 불러　자르-아 → 잘라
　ㄹ◯-ㅓ → ㄹ㉡ㅓ　ㄹ◯-ㅏ → ㄹ㉠ㅏ

ㅡ탈락은 ㅡ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대부분이 겪는 현상이다. ㅡ가 탈락하고 나면 ㅡ 앞에 있던 자음이 뒤의 어미와 결합하여 써, 가, 퍼와 같이 표기된다(①). 그러나 몇몇 용언은 이러한 규칙에서 어긋나 ②와 같이 불규칙한 활용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활용형을 통틀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②와 같은 사례를 '르-불규칙'이라 한다(즉, ②는 ㅡ탈락의 사례가 아님). 불규칙 용언은 단어-품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5. ㅏ/ㅓ 탈락

용언 어간이 ㅏ나 ㅓ로 끝나는 경우, 각각 ㅏ와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ㅏ/ㅓ가 탈락한다.

① 가-아 → 가　　자-아라 → 자라
ㄱ㉦-ㅏ → ㄱ∅ㅏ　ㅈ㉦-ㅏ라 → ㅈ∅ㅏ라
② 서-어 → 서　　건너-어라 → 건너라
ㅅ㉦-ㅓ → ㅅ∅ㅓ　건ㄴ㉦-ㅓ라 → 건ㄴ∅ㅓ라

※ 참고

수능에서 음운 변동으로서 주로 다루는 탈락 현상은 정해져 있는데, 1, 2번에 해당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ㅎ탈락이다. 이 두 현상의 경우 표기에 그 탈락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문자상으로 음운 변동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기 → 탈락 → [발음])

반면 3~5에 해당하는 탈락 현상은 그 변동이 이미 표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소 결합 단계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탈락 → 표기 → [발음])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발음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출제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탈락 현상은 자음군단순화와 ㅎ탈락이 매우 중요하다.** 음운 변동 복합 문제에서는 이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두 현상의 원인과 결과, 차이점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으면 한다.

심화

○ ㅈ, ㅊ 뒤에서의 이중 모음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ㅟ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찌어 → 쪄[쩌]　다치어 → 다쳐[다처]

이 경우, 이중 모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반모음이 탈락하는 탈락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수능 특강에서는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적인 음운으로,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룰 〈첨가-4〉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다.

[기본]

첨가 添加

음운 첨가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초성에) ㄴ첨가　2. (종성에) +ㄴ소리　3. +ㄴㄴ소리　4. 반모음 첨가

1. ㄴ첨가

당신은 금융을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가? [그뮹]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늉]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틀린 발음은 아니다. [그뮹]과 [금늉]은 모두 표준발음이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자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하여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운론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첨가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첨가하지 않고 발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굳이 음운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어떤 단어가 발음될 때 첨가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 발음을 암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모를까 발음을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표준발음을 통해 첨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밖에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힐 수만 있으면 된다. 인간의 언어 현상에 대한 문법적 분석,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첨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성에서 일어나는 ㄴ첨가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ㄴ이 첨가되는 양상을 탐구해보자.

① 식용+유 → [시굥뉴]

② 막+일 → 막닐 → [망닐]　영업+용 → 영업뇽 → [영엄뇽]

③ 불+여우 → 불녀우 → [불려우]　발+야구 → 발냐구 → [발랴구]

①의 경우 ㄴ이 첨가된 후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순수한 첨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의 경우 ㄴ이 첨가된 이후 앞 자음이 비음화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다. ㄱ과 ㅂ이 각각 ㅇ과 ㅁ으로 교체된 것은 모두 첨가된 ㄴ에 의한 것이다.

③의 경우 ㄴ이 첨가된 이후 ㄴ이 유음화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다. 앞말의 받침이 ㄹ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③과 같이 유음화로 첨가가 가려지는 경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ㄴ이 첨가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심화

○ ㄴ첨가 관련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 : 니불]	홑-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삯-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꼰닙]	내복-약[내 : 봉냑]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녈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녇]	담-요[담 : 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엄뇽]	식용-유[시굥뉴]	백분-율[백뿐뉼]	밤-윷[밤 : 뉻]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 : 녈/거 : 멸]	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금융[금늉/그뮹]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 : 릴]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렫]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섣]	3 연대[삼년대]
먹은 엿[머근년]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섣]
1 연대[일련대]	먹을 엿[머글렫]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 · 25[유기오]	3 · 1절[사밀쩔]	송별-연[송 : 벼련]	등-용문[등용문]

[기본]

2. (종성에) +ㄴ소리 – 사잇소리현상

위에서 살펴본 초성 'ㄴ의 첨가'는 문법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정설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서 정확히 'ㄴ이 첨가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볼 사잇소리현상과 관련된 첨가 현상은 현재까지도 그 정체에 대해 문법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표기에 이미 첨가가 반영된 탓에(사이시옷) 수능에서는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과 연관시켜 간접적으로 출제하는 분야이다. (음운이 몇 개인지,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뜻이다) 아무 걱정 없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① 잇몸 : 이+몸 → 이+ⓒ+몸 → [인몸]　콧날 : 코+날 → 코+ⓒ+날 → [콘날]
+ⓒ　→ +ㄴ　+ⓒ　+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와 '몸'을 결합하여 발음하는 과정에서 종성에 음운 ⓒ이 첨가되어 ㄴ소리가 덧나고 있다. (치아는 본디 '잇'이 아니라 '이'이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ㄴ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음운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를테면 'ㄷ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 ㄷ이 첨가되어도 비음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ㄴ소리가 나므로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ㅅ이 첨가'되었다고 보면 어떨까? 뒤에 자음이 결합하였으므로 음절의 끝소리규칙을 겪어 ㄷ으로 교체될 테고, ㄷ은 다시 비음화를 겪어 ㄴ으로 교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ㄴ소리가 덧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가장 유력한 정설은 'ㅅ이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공식 해설을 제공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해설] 'ㄴ, ㅁ'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ㄷ→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즉 '콧날'은 [콛날]→[콘날]의 과정에 따라 [콘날]로 발음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한글 맞춤법에서는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ㄴㄴ소리가 덧나는 경우'라고 서술하고 있고, 표준 발음법에서도 '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ㄴ으로 발음'한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반면 1에서 설명한 ㄴ첨가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서 'ㄴ음을 첨가하여 발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음운 변동 문제로 다루지 않고 어문 규범과 엮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콧날'에 표기된 시옷은 특정 음운으로서의 ㅅ이 아니다. 바닷가[바다까]에 나타난 ㅅ과 마찬가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의문의 표지–ⓐ이다. 맛나다[만나다]에서처럼 처음부터 ㅅ이 있어서 교체를 겪고 겪어 ㄴ으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음운–ⓒ가 첨가되어 결과적으로는 ㄴ소리가 덧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알 수 없는 첨가 현상과 더불어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이럴 때 의문의 표지로서 사이ⓐ을 표기한다.

3. +ㄴㄴ소리 – 사잇소리현상

위에서 살펴본 〈2. +ㄴ소리〉와 마찬가지로 사잇소리 현상 중 하나이다.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의하면 사잇소리가 첨가된 후 1.에서 말하는 'ㄴ첨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가 많아 사실상 설명을 포기한 사례이다.~~ 이 케이스도 음운 변동 과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아무 걱정 없이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보자.

① 깻잎 : 깨+잎 → 깨+ⓒ+ㄴ+ㅂ → [깬닙]
+ⓒ+ㄴ +ㄴㄴ

깨와 잎은 합성어가 되면서 [깬닙]으로 소리가 난다. 어떻게 ㄴㄴ소리가 덧나게 되었을까? 뒷말의 초성에 덧난 ㄴ소리는 초성에서 어떤 음이 ㄴ으로 교체되는 일이 없으므로 ㄴ이 첨가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말의 종성에 덧난 ㄴ소리는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법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ㅅ이 첨가된 이후 ㄷ으로 교체되고 뒷말의 첨가된 ㄴ에 의해 비음화를 겪어 ㄴ으로 소리 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초성 ㄴ의 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잎'으로 표기하고, 종성의 ㄴ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이므로 의문의 표지로서 사이ⓢ을 적어 '깻'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첨가 현상 1, 2, 3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은 다음과 같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 ㄴ첨가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32]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2. +ㄴ소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3. +ㄴㄴ소리

32) 편집자 주 : 이는 앞서 다룬 경음화 현상의 심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차이가 있다면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물고기[물꼬기]는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사이시옷을 쓸 공간이 없으므로 표기에 사잇소리 현상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30항-1의 대표적 사례인 바닷가[바다까]는 뒷소리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경음화가 일어나는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있다. 바닷가는 표준 발음이 [바다까]이지만 30항-1에 의해 [바닫까]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발음에서는 음운이 첨가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립국어원 해설에 의하면 [ㄷ]의 첨가. 그리고 제30항 자체가 '제7장 음의 첨가'에 속함)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허용된 발음으로서, 원칙적 발음인 [바다까]에서는 음운의 첨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를 음운 변동 문제로 다루기가 까다로우므로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4. 반모음 첨가 – (or 이중모음으로의 교체)

하나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ㅑ는 반모음y와 단모음ㅏ의 결합, ㅕ는 반모음y와 단모음ㅓ의 결합, ㅘ는 반모음w와 단모음ㅏ의 결합, ㅝ는 반모음w와 단모음ㅓ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 이중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2개인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반면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중모음의 한 성분으로 간주한다면,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사례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달라진다.

	[원칙/허용]		[원칙/허용]		[원칙 / 허용]
①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어/되여]	아니-오	→ [아니오/아니요]
pi-ə	→ piyə	tö-ə	→ töyə	ani-o	→ aniyo

①은 표준 발음법의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때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음운의 첨가(반모음 첨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반모음을 이중모음의 한 요소로 본다면 교체 현상(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교체)으로 볼 수도 있다.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월 4월 등 교육청 학력평가에서는 과감히 다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반모음의 첨가' 나 '반모음으로의 교체'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간주한다는 전제를 〈보기〉를 통해 제시하고, 〈보기〉에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선택지에서 찾아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모음의 위상 문제는 다음에 다룰 축약에서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

축약 縮約

음운 축약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거센소리되기 2. 모음 축약

1.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은 ㅎ과 만나면 하나의 거센소리로 줄어든다.

① 국화 → [구콰] 읽히다 → [일키다] 낳고 → [나코] 닭하고 → [다카고]
ㄱ ㅎ → ㅋ ㄹㄱㅎ → ㄹㅋ ㅎ ㄱ → ㅋ ㄹㄱㅎ → ㄻㅋ

② 깨끗하다 → [깨끄타다] 숱하다 → [수타다] 많다 → [만타]
(ㅅ→)ㄷ ㅎ → ㅌ (ㅌ→)ㄷ ㅎ → ㅌ ㄴㅎㄷ → ㄴㅌ

③ 굽히다 → [구피다] 넓히다 → [널피다] 잡화 → [자퐈]
ㅂ ㅎ → ㅍ ㄹㅂㅎ → ㄹㅍ ㅂ ㅎ → ㅍ

④ 젖히다 → [저치다] 좋지요 → [조치요]
ㅈ ㅎ → ㅊ ㅎ ㅈ → ㅊ

위의 사례를 통해 ㅎ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ㄱ, ㄷ, ㅂ, ㅈ과 만나기만 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센소리되기는 다른 음운 변동에 의해 덮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표기에 없었던 거센소리가 발음에서 나타났다면 축약 현상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구개음화로 인해 ㅌ이 ㅊ으로 교체되는 사례에서도 표기에 없었던 거센소리-ㅊ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한 ②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이후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험에서 그 과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순서를 포함하여 용어까지 명확하게 학습했으면 한다.

그런데 ①의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ㄹㄱㅎ의 연속인데도 /읽히고/는 자음군단순화 이전에 축약이 일어나 탈락 없이 [일키고]로 발음되는데, /닭하고/의 경우에는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은 상태에서 축약이 일어나 [다카고]로 발음되고 있다. 이는 형태론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닭하고/는 명사인 '닭'에 조사인 '하고'가 결합한 /단어+단어/ 나열 환경이지만, /읽히고/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용언의 어간이 파생되는 환경으로 봐야 한다. 즉, /(어근- + -접사-) + -어미/의 구조인 것이다.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현상의 순서는 해당 음운들이 맞닿는 경계면을 면밀히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2. 모음 축약 (or 음절 축약)

① 아이 → 애　보이-어 → 뵈어　누이-어 → 뉘어
　ai → ɛ　poi-ə → pöə　nui-ə → nüə

② 오-아라 → 와라　두-어라 → 둬라　보-아요 → 봐요
　o-ara → wara　tu-əra → twəra　po-ayo → pwayo

③ 버티-어 → 버텨　다니-어 → 다녀
　pəti-ə → pətyə　tani-ə → tanyə

①은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센소리되기와 같은 수준의 축약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이'가 '애'로 축약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도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이-어'가 '뵈어'로 줄어드는 것도 과거에는 이중모음이었던 ㅚ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모음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축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래는 ③과 같은 '반모음으로의 교체'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의해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게다가 표기에 변동결과가 뻔히 반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능에서 이를 문제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와 ③은 각각 단모음이 반모음w와 반모음y로 바뀌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만약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수능특강처럼) 이는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반모음을 이중모음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이는 단모음 2개가 이중모음 1개로 줄어드는 음운 축약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시험에 출제하려 한다면 앞서 다룬 '반모음 첨가'와 마찬가지로 '반모음으로의 교체'와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기〉 박스를 통해 반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밝힌 후 출제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겉으로 드러난 표기만으로는 어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변동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체감 난도는 상승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②와 ③을 음절 축약이라고 하여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음절 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운 변동에서 다루는 것은 '음운'의 변동이지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음절이 축약되는 것을 음운 변동에서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축약 현상은 거센소리되기 하나뿐이다.

[연습]

연습문제의 줄간격을 이렇게 넉넉하게 편집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선택지에 대한 완벽한 해설을 스스로 작성**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쓸 수 있어야 하는지는 바로 뒷장의 풀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충 정답만 맞히는 태도로 임했다가는 실전에서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만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해설을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편집되었다. 물론 학습 상태를 시험하고 개념을 가다듬기에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항이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미 [마르고 닳도록]과 같은 훌륭한 문제집을 통해 많이 접해 본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문항들, 고난도 문항들로 연습 문제를 구성하였다. 평가원 문항은 추후 넓게 편집하여 [파란破亂문법 익힘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습문제 01

[문제] 다음 중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말끼리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음운 변동은 단어 내에서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숱하다/ ---㉠---〉 숟하다 ---㉡---〉 [수타다]

① 국화꽃 [구콰꼳] – 꽃향기 [꼬턍기] – 낱낱이 [난나치]

② 적적히 [적쩌키] – 맞닿다 [맏따타] – 겉치레 [걷치레]

③ 낯익히다[난니키다] – 설익히다[설리키다] – 적법하다[적뻐파다]

④ 꿋꿋하다[꿛꾸타다] – 뻣뻣하다[뻗뻐타다] – 딱딱하다[딱따카다]

⑤ 묵묵하다[뭉무카다] – 답답하다[답따파다] – 칙칙하다[칙치카다]

연습문제 01 풀이 예시

[문제] 다음 중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말끼리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음운 변동은 단어 내에서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숱하다/ ---㉠---〉 숟하다 ---㉡---〉 [수타다]
ㄱ:교체 ㄴ:축약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끼리 짝지은 선택지를 찾자!

① 국화꽃 [구콰꼳] – 꽃향기 [꼬턍기] – ~~낱낱이~~ [난나치]
↳구콰축꼳교 ↳꼳교→꼬턍축기 ↳낟→난교나치교

② 적적히 [적쩌키] – 맞닿다 [맏따타] – ~~곁차래~~ [걷치레]
↳적쩌교키축 ↳맏교→맏따교타축 ↳걷교치레

③ 낯익히다[난니키다] – 설익히다[설리키다] – 적법하다[적뻐파다]
↳낟교니첨→난교니키축다 ↳설니첨→설리교키축다 ↳적뻐교파축다

④ 꿋꿋하다[꾿꾸타다] – 뻣뻣하다[뻗뻐타다] – ~~딱딱하다~~[딱따카다]
↳꾿교꿋교→꾿꾸타축다 ↳뻗교뻗교→뻗뻐타축다 ↳딱따카축다

⑤ 묵묵하다[뭉무카다] – 답답하다[답따파다] – ~~칙칙하다~~[칙치카다]
↳뭉교무카축다 ↳답따교파축다 ↳칙치카축다

[기본]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짜임새 統辭論

1. 문법요소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

'통사'라는 말은 '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파생어'에서 이미 배웠다. 이때 통사적이란 말은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었다. 문법요소 중에는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문법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1 피동과 사동

피동과 사동은 각각 피동문과 사동문에 의해 드러나며, 피동문과 사동문은 각각 파생적인 방법(by 접사)과 통사적인 방법(by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1.1.1 피동被動

피동의 의미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피동의 피被가 쓰인 단어는 다음과 같다.

피격被擊 : 습격이나 사격을 **받음**.
피사체被寫體 : 사진에 **찍히는** 물체.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를 **당한** 사람.
피선거권被選擧權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종합하면 피동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무엇을 당하거나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동문이 필요하다. 물론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문법적 피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피동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파생적 피동문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1.1.1.1 파생적 피동문 – 단형 피동

파생적 피동문은 용언에 피동의 파생 접사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피동의 파생 접사로서는 '-이-', '-히-', '-리-', '-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어근에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접미사이다.

능동문	→	피동문
(-이-) 벌이 사람을 쏘았다.	→	벌에 사람이 쏘였다. (쏘**이**-었-다)
(-히-)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잡**히**-었-다)
(-리-) 모기가 나를 물었다.	→	내가 모기에 물렸다. (물**리**-었-다)
(-기-) 인부들이 벽을 뜯었다.	→	벽이 인부들에게 뜯겼다. (뜯**기**-었-다)

이때 각각의 피동 접사들은 능동문의 용언 어간을 어근으로 삼아 결합하여 새로운 어간을 파생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천천히 살펴보자. '쏘았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인가? '쏘-'까지이다. 이 '쏘-'를 어근으로 하여 단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단어를 생성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었다.) 어근 '쏘-'에 접사 '-이-'가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용언인 피동사 '쏘이-다'가 만들어진다. 파생어가 된 이후부터 이 피동사의 어간은 '쏘-'가 아니라 '쏘이-'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도 접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으로 인정한다.

(-되다) 그는 간척공사에 유조선을 사용하였다. → 간척공사에 유조선이 사용되었다.

(-받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 그는 그녀에게 사랑받았다.

(-당하다) 선생님은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 나의 제안이 선생님에게 거절당하였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접사로 인정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사로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와 본질적인 의미 차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피동사를 만드는 이러한 피동 접사들은 단순히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능동문의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등 문장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동 및 사동을 문장론, 통사론에서 다루게 된다.

1.1.1.2 통사적 피동문 – 장형 피동

파생적 피동문이 피동 접사에 의한 것이라면, 통사적 피동문은 피동의 보조용언 '지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조 용언을 통해 피동문이 **만들어지다**.'

이때 '만들어지다'의 '-어지다'는 하나의 어미가 아니다. '-어'까지가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지다'는 보조용언이다. 그러나 보통의 보조용언과 달리 항상 붙여 쓰는 것을 한글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어미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기억하자. '-어지다'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붙여 쓴 형태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통사적 피동을 마저 숙지하자.

약속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 (늦추-어 지-었-다)

이 건물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보태어졌다**. (보태-어 지-었-다)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평화롭-어 지-었-다)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해졌다**. (깨끗하-아 지-었-다)

초코파이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따뜻하-아 지-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합성어로 굳어진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인데 문법적 직관으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문법적 탐구의 과제로 삼기 부적절하기 때문)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도 있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한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어지다'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사례이다.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다. / 그의 얼굴은 모자에 반쯤 가려진 상태였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 나는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건물 기둥이 불에 녹아 비틀어졌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특강에서는 통사적 피동으로 '-게 되다'까지 제시한 바 있다. (2019학년도 대비 수능특강부터는 삭제된 상태) 이는 '되다'의 보조용언 용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중국어사전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조용언으로서의 '되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둘의 입장이 차이가 나므로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통사적 피동으로 '되다'를 엮어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2 사동使動

사동의 의미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사동의 사使가 쓰인 단어는 다음과 같다.

사환使喚 :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사역使役 :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종합하면 사동이란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무엇을 시키거나 어떻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동문이 필요하다. 물론 어휘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문법적 사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사동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파생적 사동문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사동문이다.

1.1.2.1 파생적 사동문 – 단형 사동

파생적 사동문은 용언에 사동의 파생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사동의 파생 접사로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가장 대표적이다.[51] 이들은 모두 어근에 사동의 의미를 덧붙여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접미사이다. 이 중 '-이-', '-히-', '-리-', '-기-'는 피동 접사와 형태가 같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주동문	→	사동문
(-이-) 아이가 밥을 먹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이**-었-다)
(-히-)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입**히**-었-다)
(-리-) 아이가 벌금을 물었다.	→	경찰이 아이에게 벌금을 물렸다. (물**리**-었-다)
(-기-) 아이가 임무를 맡았다.	→	선생님이 아이에게 임무를 맡겼다. (맡**기**-었-다)
(-우-) 봄나물로 입맛이 돋았다.	→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돋**우**-었-다)
(-구-) 쇠가 빨갛게 달았다.	→	풀무질로 쇠를 빨갛게 달구었다. (달**구**-었-다)
(-추-) 온도가 낮다.	→	방이 더워서 온도를 낮추었다. (낮**추**-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접사들도 피동문을 만드는 것으로 인정한다.

(-애-) 문제가 없다. → 문제를 없애다. (없**애**-다)

(-시키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 어머니는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시키**-었-다)

역시나 사동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접사가 등장했다. '시키다'는 '입원을 시키다'일 때와 '입원시키다'일 때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여 쓸 때에는 접사로 인정되고, 띄어 쓸 때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어이가 없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알고 있자.

---

51) 이러한 접사들은 선어말어미와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수험생들을 고민하게 한다. '보-이-다'와 '보-았-다'를 놓고 보면 접사 '-이-'와 선어말어미 '-았-' 모두 어말어미 '-다' 앞에 결합하여 문법적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았(었)-'은 거의 대부분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 '-이-'는 몇몇 어근에만 결합할 수 있다는 분포상의 제약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또 둘 사이에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차이가 난다. 선어말어미 '-시-'는 모든 선어말어미 중 가장 앞에 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어말어미 '-시-'를 각각 결합해 보면 접사가 결합한 '보이다'에는 '보이시다'가 되어 접사 뒤에 '-시-'가 오는 반면,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보았다'에 결합해 보면 '보시었다'가 되어 선어말어미 앞에 위치한다. 이는 '보-이-다'의 어간이 '보이-'까지이며 '보-다'로부터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었음을 증명한다.

1.1.2.2 통사적 사동문 – 장형 사동

파생적 사동문이 사동 접사에 의한 것이라면, 통사적 사동문은 사동의 보조용언 '하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게'는 보조적 연결어미이며 '하다'는 보조용언이다.

문법은 나를 미치**게 한다**.
그는 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선생님께서는 반장에게 출석을 부르**게 하셨다**.

1.2 부정否定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부사나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1.2.1 짧은 부정문

짧은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 부사는 '안(아니)'과 '못'이다.
나는 내일부터 밥을 **안** 먹을 계획이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나는 요즘 통 잠을 **못** 잤다.

흔히 '안(아니)'를 의지 부정, '못'을 능력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은 위와 같이 단순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다.

1.2.2 긴 부정문

긴 부정문에 쓰이는 보조용언은 '않다(아니하다)'와 '못하다'이다.
나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않을** 계획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
나는 요즘 거의 쉬지 **못했다**.

그런데 '않다(아니하다)'와 '못하다'는 청유형과 명령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않자.
급식실에서는 뛰지 *않으세요.

부정문의 청유형과 명령형에는 보조용언 '말다'가 대신 나타난다.
우리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말자**. (말-자)
급식실에서는 뛰지 **마세요**. (말-(으)시-어-요)
그대는 행복하지 **마요**. (말-아요)
이때 '말다'의 활용형으로서 '말아요' 또는 '마요'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말아요'는 문어체, '마요'는 어간의 'ㄹ'과 어미의 '아'가 탈락한 구어체로 분석된다.

심화

○ 이중피동 (파생적 피동 + 통사적 피동)

'*잊혀진 계절'

'잊혀지다'는 문법적으로 그른 표현이다. 그런데 '믿겨지지(X)' / '믿기지(O)' 않겠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잊혀졌다'를 검색해보면 신문기자들도 종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잊혀지다'는 전형적인 이중피동** 표현이다.

'잊-다'라는 어근에 피동 접사 '-히-'를 결합하여 피동사 '잊히-다'가 만들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피동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잊-다' 본동사에 보조동사 '지다'를 결합하여 '잊어지다'로 표현해도 피동 표현이 가능하다. 즉 **'잊힌 계절' 또는 '잊어진 계절'이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다. 그런데 '잊혀지다'는 이 둘을 모두 적용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진범이 잡혀졌다', '새 책이 책장에 꽂혀졌다' 등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면 비문임이 금방 인식될 것이다. 이 내용은 독자들의 머리에서 '잊히지(O)'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이중피동과 형태가 유사해서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동사에(단형 사동) 피동의 보조동사가 결합한(장형 피동) 경우들이다. '검찰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와 같은 문장에서 '밝혀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다. 여기서 '밝히-다'는 사동사이기 때문에 '(단형)사동+(장형)피동'의 형태라고 보면 된다.

○ 이중사동

'나는 10시에 아이를 재웠다.' (파생적 사동 + 파생적 사동)

'재웠다'의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자-이-우-었-다'인데 어근 '자-다'에 접사 '-이-'와 '-우-'가 연달아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다'의 사동사 '세우다', '차-다'의 사동사 '채우다' 등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사동 접미사 두 개가 연달아 어근에 결합하는 것을 '이중사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순히 사동 접사가 하나 더 결합한 것뿐, 다른 사동사와 문법적 차이가 없어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의사는 환자를 눕히게 했다' (파생적 사동 + 통사적 사동)

본격적인 이중사동은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이 모두 적용된 문장을 말한다. 위 문장의 '눕히게 했다'는 '눕-다'에 사동 접사 '-히-'를 결합시켜 사동사 '눕히다'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 사동의 보조동사 '하다'를 재차 결합시킨 형태이다. '의사는 환자를 **눕히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3의 인물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의사'가 어떤 인물 'X'에게 '환자'를 눕히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이중사동문은 A가 B를 통해 C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보다 복잡한 사동 구조를 나타낸다.

○ 간접사동과 직접사동

'의사는 환자를 눕혔다' / '의사는 환자를 눕게 했다'

주체가 객체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직접사동, 객체가 스스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도록 주체가 간접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를 간접사동으로 분류한다. 위의 예문과 같은 파생적 사동문(단형 사동)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통사적 사동문(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러한 것이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와 같은 문장은 비록 파생적 사동문일지라도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주체가 객체의 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 문제

걷히다(피):걷다(능) = 자욱하던 안개가 걷혔다(피):*자욱하던 안개를 (X가) 걷었다(*능)

어떤 용언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피동문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의 문장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아래 문장과 같이 능동문은 있으나 피동문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뽑다(능):뽑히다(피) = 철수가 풀을 열심히 뽑았다(능):*풀이 철수에게 열심히 뽑혔다(*피)

'열심히' 라는 부사어가 없었더라면 무난히 피동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열심히' 라는 부사어가 피동문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모든 피동문이 능동문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1:1대응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 안되다 / 못되다 / 못하다(본용언)

부정부사 '안' 이나 '못' 이 어근으로 쓰여 새로운 말이 된 경우가 있다.

월드컵 때문에 공부가 **안된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안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가 있다.
그것참 **안됐군**.
안색이 **안돼** 보이네요.

녀석은 심성이 참 **못됐다**.
선임은 나에게만 유난히 **못되게** 굴었다.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마.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죄송해요.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술도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나요? 콩국수 맛이 예전보다 **못하네요**.
못해도 스무 명은 왔을 것 같아요.

이때의 '못하다' 는 본용언으로서의 '못하다' 이다. 우리가 배운 부정의 보조용언은 '-지' 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참고로 보조용언 '못하다' 가 '-지' 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뜻이 달라진다.

그의 얼굴은 희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다.
결국 먹다 **못해** 음식을 남겼다.
보다 **못해** 참견을 하고 말았다.
기다리다 **못하여** 결국 돌아갔다.

이때의 '못하다' 는 보조 형용사로서 ((주로 '-다(가) 못하여'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실력확인 서술형 07

[문제 1] 〈보기〉의 ㉠~㉢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각각 한 가지씩만 서술하시오. (15점)

[문제 2] 〈보기〉의 ㉠~㉢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양상을 차례로 겪은 '나물'이라는 현대어가 있다. 이 단어가 15세기 문헌에는 어떻게 표기되었을지, 자신의 추론 과정을 순차적으로 밝혀 서술하시오. (15점)

‖ 보기 ‖

㉠ 16세기에 이르러 둘째 음절 위치 이하의 모음 'ㆍ'(아래아)는 'ㅡ'로 바뀌었다.
㉡ 17세기에 이르러 양순음에 결합한 모음 'ㅡ'는 'ㅜ'로 바뀌었다.
㉢ 18세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 위치의 모음 'ㆍ'(아래아)는 'ㅏ'로 바뀌었다.

‖ 유의사항 ‖

▶ [문제 1]의 경우 '〉' 기호를 활용하여 변화 전 후를 표기할 것.
▶ [문제 2]의 경우 세로쓰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보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문제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실력확인 서술형 06

[출제 의도]

▷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모범 답안]

▷ [문제 1]: ㉠에서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사실'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를 이룬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안긴문장인 관형절 내에서도 목적어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안긴문장이 되기 전에 존재했던 '사실을'이라는 목적어가 관형절이 되면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나타난 관형절 '그가 집으로 돌아온'의 경우, 안긴문장이 되면서 문장성분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사이에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문제 2]: [안긴문장]: 모두가 그 사실을 알다.

[안은문장]: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채점 기준]

▷ [문제 1]

1-1: 모범 답안과 유사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 20점을 부여함.

1-2: 문법적 사실과 다르거나, 답안이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서술할 경우 건당 5점을 감점함.

▷ [문제 2]

2-1: 모범 답안과 유사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 10점을 부여함.

2-2: 안긴문장의 종결형을 '알다'로 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함.

2-3: 안은문장의 종결형을 '모른다'로 하지 않은 경우 2점 감점함.

실력확인 서술형 07

[출제 의도]

▷ 국어사적 변화에 대한 학업 성취도와 논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모범 답안]

▷ [문제 1] ㉠: ᄀᆞᄅᆞ치다 〉 ᄀᆞ르치다

㉡: 플 〉 풀

㉢: ᄆᆞᆯ 〉 말

▷ [문제 2] 현대어 '나물'은 〈보기〉의 변화를 모두 겪은 단어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18세기에 ㉢과 같은 변화를 겪기 전에는 'ᄂᆞ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ᄂᆞ물'은 17세기에 ㉡과 같은 원순모음화를 겪기 전에는 'ᄂᆞᄆᆞᆯ'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ᄂᆞᄆᆞᆯ'은 16세기에 ㉠과 같은 변화를 겪기 전에는 'ᄂᆞᄆᆞᆯ'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 [문제 1]

1-1: 세 가지 변화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면 각 5점씩 15점을 부여함.

▷ [문제 2]

2-1: 모범 답안과 유사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 15점을 부여함.

2-2: 모범 답안과 유사하지만 논리적 추론 과정이 어색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5점 감점.

2-3: '나물'의 시대별 변화 과정을 잘못 기술한 경우 각 5점 감점.